

# 화재참사 '한익스프레스', 2021년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

8 송승현 기자 | ㉠ 승인 2021.04.28 13:23

민주노총 등 28일 오전 '2021년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열어  
최악의 살인기업 특별상에 '쿠팡' 선정



민주노총이 28일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2021년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을 열고 지난해 4월 이천시 물류창고 화재사고로 노동자 38명을 사망케 한 '한익스프레스'를 '2021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했다. © 송승현 기자

지난해 4월 이천시 물류창고 화재사고로 노동자 38명을 사망케 한 '한익스프레스'가 '2021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됐다.

민주노총(위원장 양경수)은 28일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2021년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을 열고 이렇게 밝혔다.

지난해 4월 29일 한익스프레스는 단 하루만에 38명의 하청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 이 사고는 12년 전인 2008년 노동자 40명이 산재로 사망한 코리아2000 냉동창고 화재사고의 반복이었다. 더구나 사고 하루 전인 28일은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이라 안타까움이 더했다.

당시 한익스프레스는 무리하게 공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폭발 위험이 있는 작업을 동시에 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 현상을 막고자 대피로조차 막아 참사를 크게 키웠다. 한익스프레스 산재참사 유가족은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우리는 아직도 2020년 4월 29일에 갇혀 있다. 참사의 원인이 그대로 밝혀지고 책임자가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루하루를 버틴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총 등이 한익스프레스를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한 것은 불법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이용해 발주처로서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해야 할 책임을 방기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29일 1심 재판부는 한익스프레스의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을 사고 원인으로 판시하면서도 관계자에게 금고 8개월, 사회봉사 400시간 이수만을 선고했다. 그마저도 집행유예를 줬다.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들을 ‘살인기업’이라 명명한 것은 산업재해 조사과정에서 90% 이상이 법을 위반한 데다, 숨방망이 처벌에 그쳐 죽은 자리에서 다른 죽음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다행히 올해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 산업재해가 기업이 책임을 다하지 못해 발생한 중대한 범죄라는 사실을 온 사회에 알렸다”라고 말했다.

이태의 부위원장은 “하지만 여전히 이 법에서 빠져나가려는 시도가 보인다. 법을 축소하려는 움직임도 있다”라고 비판하며 “지난해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된 포스코에서는 작업환경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올해 살인기업으로 선정된 한익스프레스의 후속 과정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지켜봐달라”라는 당부를 남겼다.

한익스프레스에 이어 오뚜기물류서비스와 포스코가 공동 2위에 올랐다. 공동 4위는 GS건설, 창성건설, 현대건설, 현대중공업이다. SK건설, 금호산업, 두산건설, 대우건설, 오렌지엔지니어링, 현대엘리베이터가 공동 8위에 이름을 올렸다. 선정된 살인기업에서 사망한 노동자의 96%가 하청노동자다.

강한수 건설산업연맹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이번에 선정된 최악의 13개 살인기업 중 9곳이 건설사”라며 “내일이면 한익스프레스 참사 1년이다. 그러나 그 1년 동안 우리 사회와 건설현장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돌아보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올해 최악의 살인기업 ‘특별상’에는 쿠팡이 선정됐다. 쿠팡은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상황에서 필수노동이라 부르고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되는 등 거대 기업으로 커나가고 있지만, 2020년 한 해에만 쿠팡에서 4명의 노동자가 과로사로 숨졌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부족한 방한복을 돌려 입고 거리두기와 방역이 전혀 되지 않는 현장에서 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239건의 산재신청이 있었고 119구급대가 77번이나 출동하는 등 쿠팡 노동자들이 다치고 병들고 죽어나갔음에도 쿠팡은 노동자의 죽음에 반성은커녕 노동자를 탓하기만 한다. 과로사를 보도한 언론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경총에 가입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따른 최고 책임자 처벌을 피하기 위한 자문을 받는 등 파렴치한 행태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쿠팡 칠곡물류센터에서 사망한 고 장덕준 씨 어머니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더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과 강도 높은 처벌이 필요하다”라며 “쿠팡에도 노동자를 보호하고 투쟁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필요하다. 하루 빨리 현장노동자들이 힘을 합쳐 단결된 힘으로 노동조합을 건설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참가자들은 세종문화회관 계단 옆에 자리한 영정에 헌화, 묵념하는 것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2006년부터 노동건강연대, 매일노동뉴스와 함께 노동자 사망의 심각성을 알리고 기업의 책임과 처벌 강화를 위해 매년 산재사망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 발표하고 있다. 살인기업 선정 통계의 기초자료는 산재사고사망을 정리한 ‘2020년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발생보고’를 기초로 한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통계가 하청 산재 문제를 포괄적으로 정리하지 않아 하청노동자 사망사건의 원청기업을 밝혀 원청기업의 산재로 합산해 선정한다.



민주노총이 28일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2021년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을 열고 지난해 4월 이천시 물류창고 화재사고로 노동자 38명을 사망케 한 '한익스프레스'를 '2021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이 28일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2021년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을 열고 지난해 4월 이천시 물류창고 화재사고로 노동자 38명을 사망케 한 '한익스프레스'를 '2021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이 28일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2021년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을 열고 지난해 4월 이천시 물류창고 화재사고로 노동자 38명을 사망케 한 '한익스프레스'를 '2021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유족이 발언하고 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이 28일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2021년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을 열고 지난해 4월 이천시 물류창고 화재사고로 노동자 38명을 사망케 한 '한익스프레스'를 '2021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했다. 강한수 건설산업연맹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이 28일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2021년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을 열고 지난해 4월 이천시 물류창고 화재사고로 노동자 38명을 사망케 한 '한익스프레스'를 '2021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했다.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들을 '살인기업'이라 명명한 것은 산업재해 조사과정에서 90% 이상이 법을 위반한 데다,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죽은 자리에서 다른 죽음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이 28일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2021년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을 열고 지난해 4월 이천시 물류창고 화재사고로 노동자 38명을 사망케 한 '한익스프레스'를 '2021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했다.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들을 '살인기업'이라 명명한 것은 산업재해 조사과정에서 90% 이상이 법을 위반한 데다,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죽은 자리에서 다른 죽음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이 28일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2021년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을 열고 지난해 4월 이천시 물류창고 화재사고로 노동자 38명을 사망케 한 '한익스프레스'를 '2021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이 28일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2021년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을 열고 지난해 4월 이천시 물류창고 화재사고로 노동자 38명을 사망케 한 '한익스프레스'를 '2021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이 28일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2021년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을 열고 지난해 4월 이천시 물류창고 화재사고로 노동자 38명을 사망케 한 '한익스프레스'를 '2021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이 28일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2021년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을 열고 지난해 4월 이천시 물류창고 화재사고로 노동자 38명을 사망케 한 '한익스프레스'를 '2021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이 28일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2021년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을 열고 지난해 4월 이천시 물류창고 화재사고로 노동자 38명을 사망케 한 '한익스프레스'를 '2021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이 28일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2021년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을 열고 지난해 4월 이천시 물류창고 화재사고로 노동자 38명을 사망케 한 '한익스프레스'를 '2021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이 28일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2021년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을 열고 지난해 4월 이천시 물류창고 화재사고로 노동자 38명을 사망케 한 '한익스프레스'를 '2021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했다. © 송승현 기자

 송승현 기자 now.worknworld@gmail.com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